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 여성과 소비 | 교단일기 | 스토리텔링 파워

나눔의 습관

김신희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이름 모를 그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젠 중 아냐. 춥고 배고플 때여야."

난방도 못하고 옷도 변변찮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여태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의미한다. 누군가 아직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에 쫓기어 바쁘게 살다가도 연말이 되면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와 함께 세밑에 서 있음을 실감한다. 여러 단체에서 기부를 요청해 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 성의를 표하기도 한다.

기부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적게 소유한 사람이라도 나누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큰 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그 여유를 찾기가 어렵다. 나눔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꼭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나눌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재능기부란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기부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 최근에는 농어촌 재능기부 캠페인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여러 사회복지시설과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봉사로 움직여진다. 역사적 질곡 속에서도 그 시대마다 사명을 감당한 선각자, 혹은 봉사자들의 노고를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보다는 '봉사인증'을 받아 활용하거나 봉사점수가 있어야만 하는 때가 왔다. 인사고가에 도움이 되고 흔히들 말하는 스펙관리 차원에서 억지로 봉사를 찾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기부천사들도 있지만, 가끔 인맥을 동원해서 쉽게 봉사활동 증명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봉사란 아주 작은 배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일에서부터 골목길을 청소하는 일,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길을 물을 때 자세히 알려드리는 일도 봉사다. 혹여 내가 소속된 기관과 단체에서만 봉사의 모습을 보이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 계절에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다고 한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대책이 없다고들 말한다. 정말 그럴까? 최근에 어느 강의에서 들었던 한 예화를 전해 주고 싶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어린 소녀가 제대로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동냥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화가 치밀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놓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아니 한동안 할 말을 잊으셨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주 문득 말이다. 대책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놓았는데… 나는 너를 만들었다."

세상은 어둡지만 대책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책이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나 자신이 대책이 되어 보자.

나눔으로써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진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 정성을 나눌 때,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십자를 창설한 앙리 뒤낭의 인도주의적 실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국경, 인종, 이념을 초월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특히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저체중과 영양실조, 결핵과 같은 소모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YWCA도 전국 53개 YWCA와 함께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매 식사 때마다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밥상을 나누고 식탁 위에 놓인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나누고자 한다.

그나마 북한 안주지역 탁아소에 분유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나눔 밥상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한 식구임을 느끼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생명과 사랑을 일구는 정의와 평화 실천 운동임을 기억하자.

나눔은 평화의 시작이다.

〈광주 YWCA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마음의 제동장치

박덕규

요즘은 누구나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한 가정에 자동차를 1대 이상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성인이 스스로 운전을 한다고 한다. 자동차로 인해 우리 인간은 예전보다 더 편리하게 살아가며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유롭게 하며,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친구를 더 자주 만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 중에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제동장치가 좋다고 한다. 차가 빨리 달리기만 하고 멈추는 장치 즉 제동장치가 미비하다면 좋은 차가 될 수 없을뿐더러 아무도 그런 자동차를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차일수록 빨리 잘 달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멈추는 성능을 갖추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성능을 이해하고 장치를 잘 조작하여 달리고 멈춤을 상황에 맞게 잘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도 자동차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기만 하고 멈출 때 멈추지 않거나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에게도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의 어디에 제동장치가 필요한가 하면 마음에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작용하면서 살아간다. 마음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운전사와 같은 존재인데 이 마음이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불가에서는 마음 다스림을 소에 비유하여 마음소를 잘 길들여야만 복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하여 현대에 맞게 원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소보다는 자동차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마음을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늘 살피고 돌아보아야 인생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일을 당하여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이 이 마음을 온전하게 작용하려고 하면 마음을 멈출 줄 알아야한다고 원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마음을 작용할 때 잠깐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갖춘 사람은 만사에 성공을 보나 그렇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나온 세월에 훌륭하고 인정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마음을 잘 작용한 사람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때에 따라 곳에 따라 일에 따라 멈추어 가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눈과 귀는 밖으로 향하여 보고 듣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음이 조정하는 것이라 보고 듣는 것을 때때로 멈춰서 내안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겨울이 점점 깊어진다. 겨울엔 나무들이 밖으로 뻗어가던 가지는 멈추고 잎마저 다 떨어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마저 포기하고 안으로 갈무리함으로써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맞이하는 여러 상황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내어 마음을 멈추어 안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자.

이번 겨울엔 마음의 제동장치를 점검해보고 잘 활용해보자.

〈원불교 서광주교당 교무〉

기고

5·18 진실과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가

손재홍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 고전적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유명한 러시아 역사학자 'E·H 카'라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에 머물지 않고 현재적 관점에서 조명되고 의미가 부여되어 비로소 역사가 된다. 때문에 특정 사건과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 정권', '5·18 민주화운동'이 모두 삭제됐다. 또한, 정부 수립 직후 친일파 청산 노력과 관련된 부분도 사라졌다.

수백 년 전 역사도 아니고 역사의 증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대사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권 말기를 치닫는 MB정부의 '최대 악수'로 기록될 만하다.

이 사람들은 후대의 역사적 비판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일까?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나라는 역사 기술에서 적어도 일본과 달라야 한다.

그동안 일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근대화를 당겼다는 식으로 미화하고 박정희 독재를 산업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5·18 등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든 폄훼해왔던 것은 아는 터라 이를 실지 역사교과서에 적용하려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

맹자(孟子)에 농단(壟斷)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시장의 높은 곳에 매장을 차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익을 독점했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현재는 권력을 이용해 우민화(愚民化)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MB 정권이 스스로 과거의 독재정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역사의 농단을 중단하고 독재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 되었던 5·18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해야 할 것이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은가. 유사 이래 권력자들에 의한 정치가 학문을 지배하려 한 시도는 많았지만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필두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랄 뿐이다.

〈광주광역시의원〉

낚시꾼 쓰레기 무단투기 심각…면허제 도입 시급

농민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농작물의 병충해가 아니라 농촌 주변으로 몰려드는 낚시꾼들이다. 농로로 가는 길목을 승용차로 막고 주변에 온갖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가기 때문에 농민들과 다툼도 자주 일어난다.

요즈음 낚시는 일반 저수지 낚시 말고도 농촌의 논을 사서 물과 고기를 가두고 하는 민물 유료낚시도 많고 그밖에 전국에 댐, 냇물가나 혹은 강가에서 하는 무료낚시도 많다.

그러나 낚시터 주변에는 먹고 버린 음료수와 술병, 각종 비닐포장지 등이 낚시터 한편에 쌓여있고, 음식물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출입해야 할 길 가에 주차를 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낚시꾼들의 출입을 아예 통제하는 곳이 있고, 지역주민들과 낚시꾼들 간에 싸움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면허증을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국가들은 면허료와 기타 수익금으로 낚시감시원을 고용하고, 저수지 주변 청소와 관리에 쓰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낚시진흥회가 주축이 되어 낚시터 유지관리, 환경정비, 청소 등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속히 낚시면허제를 시행한다면 면허료를 받아서 그걸로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낚시감시원을 고용하여 낚시 마릿수 제한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전국의 낚시터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삼성가전 '해외이전' 너무 이기적 아닌가

광주 가전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대우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대우는 내실경영을 들어 해외 생산물량을 국내로 되가져오는 반면, 삼성은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국내 물량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명암이 아닐 수 없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은 내년에 세탁기 물량을 스페인 등 해외 공장에서 일부 가져와 올해보다 10% 이상 증산할 방침이다. 지난해 냉장고 라인에 이어 지난 7월 세탁기 라인을 증산체제로 개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우일렉의 이 달 세탁기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에 반해 광주경제의 큰 축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올해 청소기와 세탁기 등 생산 물량의 30%가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멕시코와 베트남 등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량 감소가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품의 95%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파장이 광주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막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올 들어 협력업체 3곳이 문을 닫았고, 4~5개 업체는 자금난으로 수개월째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해온 협력업체들을 삼성이 한 순간에 팽개치는 것은 기업윤리상 온당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세계의 기업' 삼성전자가 할 일이 아닌가.

광주시 역시 가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떠들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해외 이전 차단과 협력업체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정부가 맡아야

광주지하철 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무임 승객이 전체 고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무임 손실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무임 손실액은 최근 5년간 22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전체 승객의 31.6%가 무임승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공짜 고객인 상황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지하철의 무임 운송 인원은 지난 2006년 289만5000명에서 2010년 547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도 2006년 28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54억71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무임 승객이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행처럼 지하철의 무임 손실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구조로는 해당 공사뿐 아니라 지방 재정의 동반 파산까지도 우려된다. 전국 광역의회가 23일 도시철도 무임 운송 손실액에 대해 정부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복지는 당연히 국가가 맡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하철 무임 운송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고 있다. 더구나 국가철도 할인 손실분은 지원하면서 지방철도 무임 승차 적자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감안, 지방 지하철 무임 운송 적자 보전을 위해 조속히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 물론 공사 측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 내실화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비 보전을 받는 데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삼청각

1973년 11월의 어느날 서울 성북동 삼청각(三淸閣) 내 천추당(千秋堂).

"두웅~당~다당~당" 팽팽하게 조인 12현 위로 하얗고 고운 손이 춤추듯 오르내린다. 깔끔한 쪽머리, 단아한 한복차림의 젊은 기생이 노련한 음색을 뽑아낸다. 당대의 실력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정일권 국회의원이 예산안 관련 문제로 밀담을 나누고 있다.

동석한 기생이 오늘의 주 요리인 '송이 신선로'를 권한다. 소고기·전복·인삼 등 30여 가지가 가득한 신선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입보다 눈이 먼저 호강하는데…" 이 정보부장이 기분좋은 농담을 건넨다, 고급 요정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이들은 가야금 음률과 북악산 자락의 풍광을 즐기며 현안을 논했다. 이른바 '요정정치'다.

3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2011년 11월 12일. 삼청각 내 6개 한옥 가운데 하나인 천추당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경제 전문가들이 점심 한정식 코스인 '유하수라'를 맛보고 있다. 9개 코스의 한식이 차례로 나올 때마다 연신 '원더풀'을 쏟아낸다. 점심 가격은 1인당 4만9500원. 기생들의 은밀한 가야금 연주대신 국악단의 런치 콘서트가 흥을 돋운다.

1972년 지어진 삼청각은 그 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대표단의 만찬을 베풀던 역사적 장소다. 국빈 접대와 정치적 회담을 위한 고급요정으로, 1970~80년대 대원각, 청운각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요정으로 이름을 날렸다. 90년대 들어 룸살롱과 호텔에 밀려 폐쇄된 것을 서울시가 사들여 2001년부터 전통문화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정에서 한정식과 국악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전통문화 명소로 변신한 삼청각은 운영 10년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됐다. 천추당에서 맛본 한정식은 전라도 한정식에 비하면 맛이 한참 떨어졌다. 다만 세련되게 매뉴얼을 만들고 여기에 문화 콘텐츠를 더했을 뿐이다. 예향과 맛의 고장 광주에는 언제쯤 이런 명소가 생길까?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